東亞日報

重刊辭

主旨를宣明함

天道ㅣ無心치안어 이疆土에 解放의瑞氣를 배프시고 聖祖의神意 無窮하시어 이天民에게 自由의活力을 다시주시니 이는 오로지 國事에殉節한 先烈의功德을 가록타하심이오 東亞에 빗난 十字軍의武勳을 기록하심이라 世界史的變局의 必然的一面이라할듯 이何等의感激이며 이何等의禍福인가?

日章旗抹殺事件에 트집을잡은 侵略者 日本僞政의 最後的惡으로 廢刊의極刑을 當하얏든 東亞日報는 아제 "이날"을期하야 復活의光榮을被하며 "이날"을期하야 主旨의要綱을 다시금 宣明하야써 三千萬兄弟와 더부러 同喜 同慶의血盟을 맺으려하는바이다.

創刊以來로 二十餘年間 押收削除의 亂杖이 千度를넘엇스며 發行停止의惡刑이 四次에이르러 滿身이血痕이엇스나 그러나 民族의表現機關으로 自任하엿든 東亞日報는 가진侮辱과 가진迫害를 벗어가면서도 오히려 民族의面目을 固守하기에 最後의苦節을 다하엿든것이다.

그러나 敵은執柄者라 一九三八年八月十日畢竟 殺害를當하고말엇던것이니 是日에 民族은感覺을일엇고 知性을 엇고 情操를일어 이땅의日月은 빛이 잇는듯업엇스며 貪政의 行使는 그極에達하야 아름바 供出은 검네와雜草에이르고 姓氏名과話言에 이르럿스며 衆하야 醜類의 助惡이 날로더하매 天地는진실로 暗澹한배잇엇으나 八月도十五日 雷霆이 一巡하자 蒼天은 한고비 놉아젓스며 大地는 그대로 넓어젓스니 이何等의壯觀이며 이何等의盛事엿든가? 東亞日報는 創刊劈頭에

1、民族의表現機關으로自任하노라。

2、民族主義를支持하노라。

3、文化主義를提唱하노라。

의三大主旨를 宣明하야 言論報族의 大綱을 삼은바잇엇거니와 이主旨를通하야 흐르는一貫한精神은 네나이제나 다름이업다。時勢의制約을따라 用語에限界가 잇섯슴은 勢固難避라 하는수업엇거니와 耿耿一念이 오직 民權의暢達을 主張하고 民生의 安堵를 希求하며써 民族全體의 永遠한繁榮을爲하야 筆政의全能을 傾注하려든 丹誠은 今昔의別이 잇슬理업다。

이제 重刊에臨하야 우리는創刊當初의 三大主旨를 그대로 繼承함에 何等의未洽을 느끼지안거니와 現局에處한 우리의 主旨를具體的으로敷衍한다고하면 大綱아래와갓다。

1、첫재로 우리는 時間 空間이 自別한 우리의 獨自性을 高調한다。五千年동안 時間의集積으로 育成된 우리의傳統과矜持 亞細亞的領域의 風土로醇化된 우리의理念과 香氣로써 民族의完成 民族文化의完成을 扶翼코저한다。

2、둘재로 우리는 民主主義에依한 輿論政治를 支持한다 그리하야 民意에依한 民意를爲한 人民의政體를 大成하여써 國權의尊嚴과 國運의發揚을爲한 모든建設을 協贊코저한다。

3、셋재로 우리는 勤勞 大衆의幸福을 保障하는 社會正義의具現을 期約한다。그리하야 機會均等의公道에依한 理想社會의實現을 推進코저한다。

4、넷재로 우리는 徹頭徹尾한 自主互惠의精神이 交關의原則됨을 信奉한다。그리하야 領土의大小、國力의强弱等差別을超越한 國際民主主義의確立에 寄與코저한다。

欄을질리하고 뜻을 다시금 다듬어 逐條的으로解明할機會가 잇슴을約束하거니와 우리는 以上과갓은主旨로써 우리의行動

On Republication

An Enunciation of Aims

The unfailing will of God has brought liberation to this land, and the unending protection of the revered spirits of our fathers has restored to this "chosen" people vitality of freedom, a mark of divine approval of the merits of those that laid down their lives for our national cause and of the glorious exploits of the crusaders of justice in the Far East. A fated scene of historic change, term it as you will, how can we accept it without gratitude and without a sense of beatitude?

The "Japanese flag cancellation" case lent the desperate Japanese oppressors an excuse to silence our press forever. In this day, however, the resurrected Tong-a Daily means to glory in her new life, and, freshly enunciating her aims, to take a most solemn vow, before the thirty million brethren, to stand by them through thick and thin.

During the twenty and more years of its publication, it suffered suppression or cancellation over a thousand times [illegible] to the very [illegible] national honour, firm in the [illegible] its being the voice of the people.

It was stabbed to death at last by the enemy. Alas for that day! It was as if the race were deprived of its feeling, intelligence and sentiment. Even the sun and the moon looked no longer what they had been. Tyranny reached its zenith. People were forced to part even with their rags and grass. Their names were banned; their language was forbidden. Miscreants egged their already wicked masters on to worse deeds. Thus, the country was plunged into complete darkness. Aug. 15th came. With a peal of thunder, as it were, the blue sky looked high over the broad earth. What a granduer! What a glory!

The three chief aims given out on the very first issue of the Tong-a Daily were to be the organ of the people, to uphold democracy and to advance culture-principles by which to serve the people through press. In the spirit that inspired those aims, there is no change, no difference between past and present. It is true, we were restricted by the then prevailing situation, and restrained in the use of language, but the one absorbing thought was to uphold the people's rights and seek after the general welfare. In the unbending will to exhaust the power of pen in the cause of promoting the prosperity of the entire people, there can be no difference between yesterday and to-day.

In re-opening the press, we do not hesitate to retain those three aims just as they were, still we feel the need of expatiating on them in the light of the present situation.

(CONTINUTE TO NEXT PAGE).

祝東亞日報復刊

警世木鐸

金九題

金九主席의祝筆

各[illegible] 信地. 完全한 自主独立

本報重刊에 各方面祝辭

自由로운前途祝福

朝鮮駐在美軍司令官

나는多年間壓迫으로 出版갑붕의自由를 일어버렷다가 이제야 自由로운 新聞을創刊또는 續刊할수잇게된여러분의 깃붐에對하야 慶賀하는뜻으로 이글을보내는바입니다

나는貴國의 새로운將來곳壓迫者의 束縛으로서도能히 滅亡시키지못하엿든 偉大한 國民으로서의自由로운前途를向하여 새出發하심에對하야 同慶하여마지안는바입니다

나는여러분이 여러분에게與된 새自由를善用하여 國民으로하여금 幸福과繁榮의새로운 水準點에達하게하는 方途를修得하실줄로確信하고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目的을達하심에는 朝鮮人全部가一致合力하심과 强力한協調精神과勤務의精神 잇는國民을 發展向上시키려는 眞實한努力을要하는바외다

여러분이生活해온日本的經濟組織의完全한崩壞로因하여解放直後의數個月동안에는困難이잇슬것입니다 새紀元의基礎가서라는最初의數個月동안에는朝鮮國民의眼前에直面해잇는任務를遂行한다는熱意가가장重要한것입니다

나는朝鮮人全體가이世紀的事業에總力을集中하여目前에노힌偉大한目標에到達하실것을確信하는同時에우리가到達할目標가곳永遠한目標에到達함을確信합니다

John R Hodge

指導機關되어라

李承晩博士의말씀

東亞日報가 나온다니매우 반갑습니다

나는 米洲에 잇을때에도 東亞日報를 보앗읍니다 그래서 國內消息을 傳하여주는唯一한 동무로 생각하여왓습니다 그러다가 몃해前인가日本政府의 壓迫으로 廢刊이된 新聞을 알게되자 우리運動의 有力한 同志者를 일잇무고생각하고 매우 슴퍼하엿습니다 이번歸國햇슬때도 의례히 東亞日報는 다시復活되엿스리라고 생각햇든것이 그러하게 되지못한 事情을 듯고大端히 딱하게생각하고 적막하게 생각햇읍니다 東亞日報가 [illegible] 爲해 [illegible]

오랫동안中止되엿든 東亞日報가續刊되니 大端히 반갑습니다。國內에서 또 海外에서 惹起되는 諸般事件을 國民에게알려주기爲하야 新聞은必要한것입니다。新聞의 [illegible] 重大한

慶賀不已

民政長官 쉬ㅣ쓰代將

國民에게報道機關으로서의使命을다할수잇는公正한新聞을가지지못한나라는自由의完全한能力을享有할수업다고생각한다。다시말하면社會에서일어나는모든問題를多角的으로觀察하야公平無私하게報道하는것이다。

나는東亞日報가朝鮮의主要新聞의하나로서다시금그堂堂한地位를엇게됨 이慶賀스러운날을衷心으로祝賀합니다。

李[illegible]

[illegible] 建設 [illegible] 過去의功勞는 누구나다認定하는바이겟지만 [illegible] 使命과 職責은 [illegible] 잇다고 생각합니다 言論機關이가진 偉大한 [illegible] 建設에 [illegible] 目합니다 內外情勢를 忠實하게

昔日의偉力再發

아ㅣ놀드軍政長官

Arnold

報道하는것이 [illegible] 차만 單純한 [illegible] 저서는 [illegible] 民族의 [illegible] 反映한다고해서 [illegible] 白이나 본간업시 [illegible] 하거나 迎合하는것도 [illegible] 가업습니다 一定한 主義 [illegible] 아래에서 [illegible] 判斷을 나리고 指導的 [illegible] 務를 다해야할것입니다 지금우리나라形便으로 보아서 이러한 指導的인 任務는 言論機關이 必要합니다 따라서 다시 發刊되는 東亞日報에서도 그이갓튼 期待를가지고 그前途를 祝福합니다

[illegible] 新聞의 [illegible] 重[illegible]

[illegible] 大[illegible]

우리는우리의마음이主師의前衛도가[illegible] 하야 우리는우리의마음이主師의 前衛도 되기를自期한다

溥天下의同志여! 兄弟여 姉妹여! 우리의 念願을 바르다하시고 우리의丹心을 미쁘다하시어 鞭撻의 [illegible] 아끼지말아지이며 絶大한聲援을 느추지말아 光復의偉業을 大成하야써 우리民族으로하여금 未來永劫에 빗나게하라。

檀紀는 四千二百七十八年十二月一日 東亞日報 同人一同은 씀가 이 一文을 草하야써 解放戰線에 熱血을뿌린 在天의 英靈께 哀悼의禮를 가추며 아울러 三千萬同胞와 心琴에 激한다

[illegible] 大[illegible]을開拓하고 正[illegible]을 [illegible]하려는것이다。[illegible]新聞의 固有한機能과使命이 [illegible]의 忠實한報道에잇슴은 勿論이려니와 그러라하여서 單純한 [illegible]에 苟安하기에는우리의要請이 너무도巨大하며 不偏不黨의言論이라하야 是非의判別과 曲直의混雜을 그대로容認하기는 우리의情勢가 너무도 强烈한배잇다。

우리는 이미 [illegible] 우리의血管에는 脈脈한生血이 그대로 激流를지으리니 矢는 一바야흐로 弦을떠나지라 一條[illegible]이 잇슬수업스며 左顧右眄이 잇을수업다 오직우리는 人道와正義에則하고 大義와名分

說竪說橫

▼日章旗抹殺事件에 責任을지고 물러낫던지가 잘아다보니 벌서九年의歲月 ▼피의傳統을가진 빗나는 過去를 回想하면서 때맛기든 大道가트인 오날에 이못을들고이欄을對하니 文字그대로 千感萬感 ▼千이오萬이라도 一言으로 歸하면 하나라 心頭에 集結된焦點은 오직

諸事件의眞相을 公正하게 報道하는것입니다。新聞經營者의 重大한 任은出版의自由를 眞實하게 運用하는데잇습니다。나는 東亞日報가 朝鮮에잇서서 昔日의偉大한影響力을 다시發揮하리라고 믿고 要力을 [illegible] 잇습니다。

解放의感激 自由의感激 [illegible] 歲次는乙酉라 [illegible] 이해도 저물어가는 [illegible] 完全自主獨立은 어느때로 期約인가? ▼ [illegible] 者培之 傾者覆之 一 하날은 自助者를 도으리니 우리의 早晩은 우리自身의 努力如何에 누리업는 [illegible] 興國의 大道 [illegible] 오 安在라 [illegible]이면 [illegible] 나 [illegible] 자말고 [illegible] 이 [illegible] 立?促成? 가 [illegible] 成 셋재 [illegible] 以下餘白 ◇

세월이 [illegible] 며무지것 [illegible] 배추가 [illegible] 에大衆 [illegible]

[illegible] 一日一談 [illegible]

大[illegible] 손으로 번개를 [illegible] 웁어 [illegible] 먹고 [illegible] 嶺山 北海 [illegible] 泰山이 [illegible] 웨 [illegible] 하더라

◇此欄投稿歡迎 一首一人(三名)

最高唯一의政府

己未運動後總意로成立

臨時政府絕對支持하자

우리의 한마디

第一次大戰後 民族自決主義가 世界主潮가될에 이르러 全世界의被壓迫民族— 強國의侵略을當하야「國家」를일헛든 弱少民族 東西의別이업시、自由의 [illegible]을들고斷然히일어섯섯 悠久五千年의歷史를가 [illegible]리民族도 이機會를노 [illegible]업서서 손에寸鐵이업서 三千萬의總意와總血을武器로 強盜暴[illegible]에 일어섯든것 이것이이른바已未獨[illegible]動이엇다 一九一九年三月一日世[界를]向하야堂堂朝鮮民族의 獨立을宣言하는同時에 의一人最後의一派까지 다는決意를表明하고 三千里坊坊谷谷津津浦[浦에]서日軍警과의鬪爭을始[作하]엿다 原來 勝敗의觀[念을]超越한自不能已의싸움 [일]뿐아니라 文字그대[로赤]手空拳의 血戰이엿슴 [으로] 가지가지의 [犧]性을남긴채組織的表[現의鬪]爭은時日의經過를따라 [消散]되고말엇다 그러나 [그]民族鬪爭意識은三千[萬民]族血管속에 그대로潛[在하]야쉬지안코生動하고잇엇다 國內에서는地下로潛入하야以心傳心의戰法으로 不絕히鬪爭을계속하엿고 또國魂을등에지고風霜露宿 三十年間海外에亡命하야 오직祖國再興을丹心祝願하엿든것이다이와갓치國內國外가서로呼應하야 同一한 國魂을가지고 오늘까지싸워왓든것이다 그리하야一九一九年四月十七日에는中國上海에서李承晩氏 金奎植氏 安昌浩氏等을中心으로大韓臨時政府를組織하고 年號를大韓民國元年으로作定하엿섯다 이것은已未萬歲運動後即同年四月十六日에民意를代表한朝鮮十三道代表들이 서울에모혀서 國民大會를열고政府를樹立하엿엇는데이와連絡하야 海外 에서도臨時政府를樹立한것이다臨時政府는 곳朝鮮民族의總意에依하야 成立된것인바、다못日本官憲의彈壓을避해서海外로國魂을、등에지고나간亡命政府인것이다、過去二十七年間荊棘의길을걸어온臨時政府는、우리의最高尊嚴인同時에、그指導에服[從]하여야할朝鮮의正統政府이다、特히「카이로」會談時에는蔣介石主席이朝鮮의自主獨立을提案하엿다는事實은이미다共認바인데이것은오로지 金九主席以下臨時政府要人이心血을傾注한努力과奮鬪의結果라고아니할수업다、「카이로」宣言은美英中三國이世界에公約한것으로서 國際公約에朝鮮問題가正式으로登場하게된것은 아마 이것이 처음일것이다 米國에서 李承晩博士의 不屈不撓의努力과 重慶에잇는 우리臨時政府要人들의 奮鬪가업섯대면、果然우리에게 「카이로」宣言이란 絕好의 機會가 그러케簡單히 來하엿을수잇을가?臨時政府가國際的으로中佛美를非公式承認을밧게된것亦是海外에게시는臨時政府要人들에活動에依한것이라고아니할수업다 이와갓치 己未萬歲運動을契機로國內 國外에서 서로呼應하야國魂을지고 海에亡命한臨時政府는 우리民意에依한政府이니 우리는 이를絕對支持하는同時에 여기에對立或은背馳되는政府나團體가잇다면 그것은排擊하지안흐면안될것이다「카이로」宣言에約束된 朝鮮의 自由獨立國家樹立은臨時政府를土臺로한 政治勢力의集結이안니면안될줄안다 出發이民意에依하지안흐면안되나니 三千萬民族은모름즉이 臨時政府에 歸依하지안흐면안된다

絕對信奉하자

個人資格은對外關係뿐

金主席會見後宋鎭禹氏談

待望하던 우리臨時政府 金九主席以下 各要人의 還國으로말미아마 國內政界는 俄然[illegible] 三千萬民衆의 注目[illegible]이되고잇다 主[illegible]人은 還國한後[illegible]務를 正確히把握[illegible] 아무런政見도 發表치안코 愼重한態度를 取하면서 먼저 韓國民主黨首席總務 宋鎭禹氏를비롯하야 國民黨安在鴻氏等國內重要政黨 首腦者諸氏와 會見하고懇談하엿는데 그會談內容은 알수업스나 臨時政府要人 還國後最初의 會談이니만치 그動向은 極히 注目을끌고잇다 이제 韓國民主黨首席總務宋鎭禹氏를往訪하고 今後政界의 歸趨를 뭇기로하엿다

問 臨時政府要人이個人資格으로還國하얏다고하는데이에對하야先生은어떠케생각하는가

答 公式、非公式을超越하야우리三千萬民族은다갓치大韓民國臨時政府를唯一眞正한政府로信奉하지안으면아니된다、個人資格이니非公式이니하는것은對外的인法的關係를考慮하는것일것으로對內的으론問題가되지안는다、이政府以外에는아모런政府도우리가가질수업다는것을嚴廟히생각하여야할것이다

問 臨時政府는 國內各政治勢力과 如何한步調를 取할것인가

答 自主獨立國家體制를 急速히樹立하기爲하야는 무엇보다도 臨時政府의 核心的政治勢力을 土臺로하야 各派와合流하여야한다는것은 이미十四條[illegible]에 發表된것이다

問 臨時政府를 改造하며는말이잇는데 改造의時期와方法은어떠한것인가

答 改造의時期와方法은알수업으나 當面한現階段에잇어서는 改造할必要가업다고생각한다 도로여 混亂만일으킬憂慮가 업지안키때문이다 이와가치생각하는것은 나뿐만아니라 三千萬民衆의 總意일것이다

問 臨時政府의 施政方向은어떠한가

答 잘알수업으나、施政의 前提條件으로서 急務는 國防軍의 確立이다 이것이樹立되지안코는 地方의治安도維持할수업고 生産增進도 期待할수업다

愚直과蠻勇으로

同人을代表하야인사드립니다

本報主幹 薛義植

東亞日報가 다시 나왓다。 民族抹殺事件으로 停[刊]重刑을當한 以來、 [illegible]다 버리다못하여 畢[竟]暴政의犧牲物이되고말엇[던 여]러분의 東亞日報는祭[illegible] 마침내解放됨 이江山 새로운構想과새로운 새[illegible]로써 새建設의 새役[illegible] 自負하고 大業의一城 하여[illegible]다시 금 나왓습니다。 울거나 웃거나間에 三千萬 兄弟와더부러存在한 東亞日報가 이제 再生의 첫날을當하여 끈허엇던여러분과血脈을 다시 이어려하는 이 瞬間에묻독心眼에 떠오르는것은 피로 물들인 惡夢의映像입니다 亂杖極刑에 衆目이업던過去의 歷史를살펼때 胸裡에去來하는것은 가지가지의 筆禍事件에 [illegible] 序을當한先輩와 同志의面影이니 解放된[illegible]土에復活된 東亞日報의"今日"이매感慨、更一層通切하바가잇슴을 禁할수업습니다。 그러나 過去는勿追라 우리의今日이 感想的追懷을 하기에는 너무도 嚴肅합니다 우리는 바야호로 世界舞臺의 前面에 登場하엿습니다 自主獨立할 能力의 有無를 檢定하려는世界의눈이 우리의 一擧手一投足을 注視하는 가장 冷嚴한 段階에잇습니다 도리커 우리자신의 動態를 살피건대 反撥이 頭諸를 차리지못하고、推進이 先後를 가리지못하는 嫌이 업지아니하여 群議 자못 紛紛한지라、이로써 光復의 大業에 累를끼치기 쉬운 現下의 實情에잇서 創刊以來民族의 表現機關으로自任하엿던 東亞日報의再出에는 그 意義와 責務 眞實로 巨大한 바가잇슴을 느끼지안흘수 업습니다 이제 先輩의 委囑과 同人의 推擧로 筆者 [illegible] 不肖하게도 主幹의 任을 맛거니와 原來 淺學菲才라 筆者와 갓흔 一個의 無名記者가 이 重大한 使命을집머진 言論의 先頭를 擔當할 力量과 氣魄이 果然 잇는가 識見이 아직 井底의 蛙를 免하지못하엿으며 名望이 또한 百里의 域을 벗어나지못하여 戰戰兢兢할뿐이니 스스로 돌아보아 微微한 自身의 存在를 슬퍼하지 안흘수 업스며 부끄러워하지 안흘수 업습니다 [illegible] 東亞日報라는 鎔爐中에서 過去 苦難의經驗을 밧아온 若干의 經驗을 가젓을뿐서이며 所信을固守하는 담담한 愚直과 所期를 强行하는 억지의蠻勇을 自恃할뿐입니다 願하건대 先輩여 바른 길로指導하소서 同志여 바른 길로 聲援하소서 그리하여 筆者와갓튼 白面書生으로도 國運의 發展에 寄與됨이 잇게하소서 重刊 第一號를 보내면서 同人一同을代表하여 讀者諸位에게 인사의 한 말씀을 드리는바입니다

政府傘下로統合

在京十九青年團體

金九主席臨場熱々하게激勵

八月十五日以後 解放朝鮮은簇出하는 各團體의亂立으로 統合을일코 分裂의現象에잇는 情勢에서지난번 大韓民國臨時政府金九主席一行의 還國을契機로 統合의 氣運을띠고잇는此際에 今三十日下午二時半 朝鮮青年大同團結 本部를 爲始한十九青年團體가 統合하야 獨立促成中央青年會를 結成하고 代表者金昌熙氏外二十五名이 臨時政府嚴宣傳部長을 通하야 金九主席을 訪問하엿다 이各團體는 解放以來그릇된 主義나黨派에 加擔치안코 오직大韓民國臨時政府를 絕對支持하여오던바인데 目的이同一하므로 統合하엿다한데 對하여 金九主席은 下午三時에서 約二十分間에 亙하야다음과가튼 熱熱한激勵를주엇다

내가海外에서朝鮮에발을드려노흔후今日이가장기쁜날이다이는다름이아니라우리가解放되엿다하나우리의背後에는무서운戰[illegible]보이지안는손이내밀고잇다海外에서는우리[illegible]人은統合과團結을모르는國民이므로몃年間의政治指導가必[要]하느니 [illegible]을하게된다 그럼으로海外에서도 數十年熱血의鬪爭을繼續하여온여러團體가잇섯스나 내가還國할때에 全部로한개의보재기로싸가지고 한뎅어리가되어還國하엿다 와서보니海外에서듯는바와가티 果然四十餘團體가잇슴으로 國內는混亂되어잇는 此際에諸員의統合은 우리의自主獨立을爲한統一線上에잇서서 當然한길이요光榮스러운事實이다 우리三千萬同胞가團結하야 한뎅어리가되어서 臨時政府를 支持한다면 列國의承認은 問題업는일이다 以上의激勵辭가끗난후 代表金昌熙氏로부터 金九主席에게드리는決議文을朗讀한후 午後三時三十分에빗나게만드러질 우리歷史의한거름인 會談이끗낫다

決 議 文

[illegible]精神으로 [illegible]青 三千萬同胞를爲하야 그릇된主義나黨派에 加擔치안코 오로지大韓民國臨時政府의 還國을一日千秋의感으로 苦待하엿습니다 우리의기쁨 이에넘치지안엇고 우리의目標는 明瞭하엿습니다 다만臨時政府의政策을 死守實施하기에努力하여 金九主席閣下以下要人 諸先生을 우리의眞正한 指導者로 確信하고 如何한命令과指導에도 絕對服從하야 一日速히完全自主獨立을 爲하야 獻身的으로邁進할을 굿게盟誓하는바입니다 우리青年은이것이眞理고 이것이使命임을確認하고 참다운죽엄의자리를 차즘을無双의幸福으로생각합니다 곳으로大韓民國臨時政府의初志貫徹을確立할革新的政策에邁進하심을渴望함니다

大韓民國臨時政府二十七年十一月三十日

獨立促進中央青年會

金九主席 閣下

◇合同參加青年團體名、朝鮮青年大同團結本部、常綠會、留學生同盟、朝鮮青年會、朝鮮青年建設團、朝鮮軍人同盟建設青年同盟、正義青年會、無窮會、滿洲同志會、自由青年同盟、東光青年會、南華同人青年同盟、朝鮮青年同志會、高麗青年黨、青虎團、愛國同志會、國民黨青年部、北鮮青年會

共軍長春서撤兵

滿洲의國共紛爭其後

【뉴-데리二十九日發共立通信】重慶外交關係側말에依하면中國과쏘聯은協定進展을보게되여長春과奉天의二飛行場에國府軍部隊가着陸하기로되엿다그리고重慶側代表는곳滿洲에돌어가고쏘聯側으로부터管理를引繼하게되엿으며、共産軍은이미쏘聯撤兵의命에依하야奉天을、兵하고또長春撤兵도進捗中이라한다

申聞鼓

◇解題一言

民意를뭇고 民情을아는것이治國의 根本이라고생각한 李朝의 太宗은 卽位하든 그해七月에登聞鼓라는 것을 만들어 [illegible] 억울한일을當한一時的官權의不當에對해서말하고십흔백성은 이북을처라고하얏下意上通의길을열엇든것입니다 말하자면善政의하나엿겟읍니다 다음달八月에申聞鼓라고첫습니다이것으로이欄을두는理由를아실것입니다 다만本欄이希望하는投稿는單純히抑압한事情、怨痛한事實만이아니라 建設에對한進言、非理에對한批評等等의[illegible]건대國家民族을爲하는 忠言苦言을불어서論題의 一貫을삼으려는것입니다具體的이고正確 明直한것이라야합니다 讀者여러분은만히이欄을 利用하야論의正道를 밟바가는데도움이되고저합니다

First, we should like to emphasize our unique racial individuality. By cherishing our traditions and sentiments formed through the long period of 50 centuries and our ideals and tastes nursed in the climate of an Asiatic domain, we mean to contribute toward the perfection of the race and that of the racial culture.

Secondly, we will uphold the democratic polity based on public opinion, thus realizing a polity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In this way, we mean to assist every constructive effort aiming at enhancing national dignity and developing national fortune.

Thirdly, we look forward to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ensuring the happiness of the labouring classes. Thus we mean to accelerate the advent of an ideal community based on fair play of equal opportunity.

Fourthly we believe in the thorough spirit of autonomous reciprocity being the principle of dealing with neighbour nations. So we mean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democracy taking into no account either territorial size or national power.

We promise to dwell on these points later on. Anyway these principles shall rule our conduct, and, at the same time, be the lines along which we shall arouse public opinion so as to pave a thoroughfare, so to speak, for all to travel in.

Of course, it is the proper function of journalism to give exact information faithful to facts. But our message is too momentous to be contented with being a mere vehicle of information. Loving impartiality as we do, our guiding policies are too definite and our zeal too strong to describe right and wrong indiscriminately or confound the crooked with the upright. The pen may be wrenched out of our hand, but through our veins connected with it shall surge the tingling blood unchecked. The arrow is just gone from the bowstring. There is no room for hesitation. We are only bent upon wielding a righteous pen, adamantine in obeying the dictates of humanity and justice and in being a martyr to loyalty and duty. We Will thus strive to be the vanguard of the righteous army and the sword to extirpate the crooked.

Comrades all over the country! Brothers and sisters! Do not grudge givng us constructive criticism, dudging our aspirations to be wholesome and our devotion to be reliable. Let us thus achieve the great task of recovering our sovereignty and make our people shine for all time to come.

On this day, December 1 thin the year of 4278, we the staff of the Tong-a Daily submit this article with due respect by way of consoling the honoured spirits of those that fell in the struggle of liberation and of appealing to the hearts of our 30 million brethren.

祝 重 刊

株式會社 和信

社長 朴興

新國家建設의 새로운構想 (一)

軍事

해방된 기쁨을안고서 세계의큰무대에등장한 조선이야말로 우리는 사랑하는 조국을다시 건설할수잇는 자유를가젓다 여기에조흔구상 조흔설게는 백년대계를위함이니 신국가건설에기초가되는군사교육 통신 교통등 각부문에걸처우리임시정부요인들이 평소부터포회하고잇는 새로운 구상을여기에 역거보려고한다

모든자유와정의가 오르지힘으로유지된다 이철측이야말로 이번전쟁의결과가우리에게또한번 뚜렷히 보혀주는조흔교훈이다 힘이엿기때문에우리는四十년동안 굴욕을당하엿고 힘이모자라기때문에 조그만한 섬나라일본에예속되어 오랫동안몸서리나는노예생활을하여왓다 국가로서는 너무도 모욕적인 을사조약(乙巳條約) 과동시에 우리의군대가 해산된이래 우리동포들의생명과재산은 완전히 악독한제국주의일본에게 멋대로맥겨저지안헛든가・해방된우리는 우리의조국을 방위하라우리가사랑하는 자유와평화를 유지하기위하여 한거름나아가서는 『세계평화』에 협력할수잇는 군사력을확보하여야할것이니 일주부러과감용장한 우리광복군(光復軍) 올거느리고 이번중일(中日) 전쟁에혁혁한무훈을세우고 한국임시정부 참모총장(參謀總長) 유동열(柳東說) 장군은지금 어떠한새로운구상을 가다듬고잇는고ー。

『心的武備』가必要
‖정신만단합되면그만‖
臨時政府參謀總長 柳東說氏談

하루빨리、국내의질서를우리의손으로、나라를 세우는기초의 힘이되려면 시급히 군사력을가저야하겟다 이미 전쟁이、다곳난오늘、일본군을모주리보내여주기위하여진주하여온우리동맹군미군과소련군장병들에게이이상더괴로움과 수고를끼처서는 너무미안한일이다 이번전쟁에서 여러가지무훈을 세운우리광복군은 편대가 곳나고 교통이허락되는대로 곳돌아올러인대 일본군대에 장병되엿든병사들을 합친종세력은、약二十만에 이를것으로 이게우리국군의 기초가될줄로생각한다 이러케허두를 내인유참모총장은 군인이가진 엄격과함께온화한 미소를띠우며말을게속한다

그러나 국가를재건하는입장에서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소련에인접되어잇고 또한 일본과가까운거리에서 늘 관게성을뛰우고잇슴모다 육군을주로하느냐 해군을주로하느냐는것 이으로 환경의지배를 밧지안을수업는것이다 천래만상으로 변화하는 국제관게를 늘머리에넛코 국방을구상할것이매 지금무어라고 단안을 내리기는 어려웁다 어찌되엿든 이번전쟁의 경험으로 보아서라도 금후에도 항공병력(航空兵力) 에만히 치중하여야하지안흘가

그러나나는이러한*원측을세우기전에먼저 비행기니 탕크니 함선이니 하는것을무엇으로맨들어 내느냐는것을생각할적에 한숨스럽기짝이업다 이뿐아니라 만은병원(兵員)을보유하여두자면 경비를만히내이도록하여야할것이니 우리가 그 경비를능히부담할수잇서야할것은물론이요비행기니 병기 군함제조에필요한물자를만히생산하여야할것이다 전부터원체 가난한우리나라가장구한 시일에걸처서어일본의착취로말미암아 이제비인속대만남어잇는데 쓰러저가는초가집에서라도 화기를띄우고 곳곳이살아갈수잇는것이니 우리는 먼저일심단합하여야하겟다 단합하는정신이야말로 국군확립의기초가될것이며 우리민족을영구히살리고 빗나게할것이아일가 (사진은림시정부참모총장유동열씨)

無電機를設備코 對外連絡을開始

우리臨時政府本格的으로活動

통상三十여성상을오로국해방을위하야거룩하감하게싸워오신(李承박사외환국을뒤이어지一월二十三일에는김구ⓒ주석을비롯한여섯요인어금의환국하시어정부조직에대한준비공작착진섭되고잇다 원간에는또다시남어지도전부도라오신다정부가전부환국하신날부터정부로서정식으로국제활동를개시할것으로이중경(重慶)에는출장소치하얏는데임시정부의가결정되는데로무전대를ⓒ三대를설치하고민국과매일무선전신전화로수차레식긴밀한열락을취하기로되어이번도라오실정부요인과갓치 중국인무전기사三명을초빙해온다 이것이한국후우리임시정부의첫국제적활동이될러인대압흐로계속하야워신톤(華府) 모스코ー바(莫斯科) 런던(倫敦) 등에도출장소를두고 무전대를설치하야외교교섭기관에직접긴밀한열락을취하며활발한외교적활동을할터이다 그런데이번설치할중화민국과의무전대는정부가사용하는시간외에는 서울국제통신(國際通信)과주국중앙통신(中央通訊) 사이의정보교환용으로제공할러이므로이로서국제통신사도비로소국제무대에등장한다

凱旋奉祝行事

今日十萬市民旗行列

十六년만에 도로찻은 기아레에 우리는 성운 국가적성전을 오거한다、온갓고난과풍격그며 오로지조국의 만을념원하며 혈투하기어코 뜻을이루어가 환국한김구(金九) 이하정부요인들을 마며 오늘오후一시부터 경성운동장에서 환영성대히 개최하게됨다。더욱이이날은 우리의해방을위하여 진주하여온 연합군의환영도겸하는것으로 각단체、중등급전문、대학생、각정회、기타각기관외대표자약十만명이 식장서울운동장에 참집하야 우리림시정부김구주석에게 봉영문(奉迎文)을올린다 그리고 태극기와악대를선두로 국군 학생대등 차서로 식장을출발하며 가두행진을한다 순로는 동대문을거처 군정청압흘지나 남대문통으로빠질예정인데 이날을경추하기위하여 접접마다우리의태극기를올리기로되엇다

住日同胞 四十六萬歸國

十一월二十六일 까지에 일본으로부터 귀환한조선인은二천四백八十五명이고 일본인八백三十一명이 조의을철퇴하엿다 二十六일현재총계는 일본인 二十七만七천八백四十四명이 철퇴하엿스며 우리조선인四十六만六천八백二十五명이귀국하엿다

美、韓人殺害陰謀

發覺된日人暴力團

씨아이씨(CIC) 의말크중위의금일발표에의하면한성군정재판소(漢城軍政裁判所)에서일본인『테로』단二十八명에대하야 五개년체형과 최고七만五천원으로부터 최저一만원까지의벌금형이언도되엿다고한다『테로』의주범(主犯)은 재등(齋藤俊春) 토정우일랑(土井又一郞) 천상의박(川上義博) 등이다 이상二十八명은 씨아이씨(CIC)와조선경찰대에체포되엿는데 취조한결과 미국인과 조선인을살해하라는 대규모의음모가발각되엿스며 자백에 의하면 그일본인들은 그흉행을조선인에게 전가하랴고계획하엿든것이다

『테로』단중수법九명에대하야는 五년간체형과 七만五천원벌금의 최고형이언도되엿는데 벌금에대하야벌금을내거나 체형으로다시五개년연장하거나 가지중의 한가지를선택할수잇다한다 녀자七명을 포함한 용의자十三명을 중거불충분으로 석방되엿다 녀자들은 범인들의처나애인들이다 석방된용의자중二명은 미군 진주인전의범죄로인하야 석방지시로 서울경찰에체포되엿다한다

斷末魔行狀記 (一)

蘇聯軍의對日宣戰直後 三千七百名檢擧를陰謀

三말

三十六년동안 우리에게가진 못된짓을하여온 제국주의일본은 八월十五일천황의굴복과함께 장차쪼께나가야할 이땅에서 그래도미진하야 가지가지의최후발악을하엿스니 여기에기록하는『단말마행장기』는 그죄악사의、토막토막이다

ー◇ー

八월九일미명 돌연 소련군이내대인 총뿌리에놀란것은 관동군만이아니다 이날아침 전광석화와갓튼

경무국지령으로 주요인물의집에는 형사대로포위되엇다 이와함께 서울의각경찰서는 만흔인원을유치할수잇는 창고를준비하엿다 소련에대하야『선전포고』만잇스면 곳 그들의평소부터지목하는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를 총검거하야유치할계획을가지고잇섯스니 그들의『리스트』에는제一급、제二급、제三급으로나누어 도합三천七백에이르는 인원이기록되어잇섯다

三十八度이북으로부터드러온정보에의하면 평북영변(寧邊)에서는땅밋헤전기장치까지하여두엇다는것이 소련군에억류된그곳일인경찰서장의자백으로서판명되엿다 이얼마나아슬아슬한사실이냐 그들은八月十五일 천황방송이곳나자마자곳모든 서류를태워버려 가진음모와죄악을숨겻슴으로 우리는지금구체적인죄악의사실을여기에옴기기는어려웁다 그러나 八月十六일경향각지의감옥문과 경찰서유치장을열고사상관게자로석방한인원이一천백여명인것만을보아서라도八월十五일을전후하야어떠한짓을하고잇섯다는것을가히알수잇다 지금생각하면 지루한악몽에서깨여난것만갓다 만일전쟁이더게속되엿드라면어찌나되엇을것인고?

運動競技

延普蹴球

四日부터再開幕

運動界도僞政의彈壓으로부터解放되어旣往에온長安의人氣를獨차지하든全普專ー全延專의蹴球對抗이斯界의熱烈한後援과渴望으로三十八度線의隘路를打開하고다시금復活되기로되어四日午後二時서울運動場에서豪華한對戰을열기로되엇다 그런데이번出戰할兩校멤버ー는다음과갓다

全普專

監督李丙學 主務金赫東 主將金容植 選手車淳 (GK)朴大鍾 (B)玄孝燮 (B)李丙雨 (B)李龍秀 (H)閔丙大 (H)金圭煥 (H)林暢植 (F)宗鎬 (F)金容植 (F)李永昌 (F)禹昌煥 (F)高永吉 (F)李甲 (F)李錫漢

全延專

監督林丙赫 主務金忠 主將金成玗 選手李炳國 (GK)崔延壽 (B)朴明三 (B)李容一 (H)朴利錫 (H)李榮光 (H)金成玗 (F)李祐 (F) (F)趙泳潭 (F)金德俊 (F)安鍾 (F)金奉讚 (F)鄭龍

더욱入場料는五圓인데 이날運動門前의混雜을緩和하기爲하야다음의七個所에서入場券을豫賣한다 △大昌洋靴店△韓京善洋靴店△金星運動具店△大陸運動具店△民衆洋靴店△東亞美粧△漢陽茶房

列車를增發

通勤通學을重視時間改正

一日부터一齊實施

전쟁이곳난이후 혼잡하여긔수송을가능한정도내에서 완화하고저 교통국에서는 금一일부터 여객열차운행을늘리고 열차운행시간을 다음과갓치변경하얏다 이번변경은주로 학생생도의통학으로하야 학생생도의통학과 일반의통근편의를꾀하는것인데 각간선에도다소 열차운행수효를 늘리엇슴으로 압흐로 기차여행은 다소편하게될것이다 다음의시간표는 용산(龍山線)올제외하고는현재운행하는열차외에 증가운행될열차시간표다

△京釜線‖(가)一三一列車 大田發八時二〇分ー京城着十三時十五分(나)一三二列車 京城發十四時二十五分ー大田着十九時二十五分(다)一三三列車 天安發四時三十七分ー京城着七時四十五分(라)一三四列車 京城發九時三〇分ー天安着十二時三十分

△京義線‖(가)二〇三列車 京城發十五時ー開城着十七時十二分(나)二〇八列車 開城發四時四十五分ー京城着七時十分(다)二〇五列車 京城發十七時四十分ー開城着二十時(라)二一〇列車 開城發五時四十五分ー京城着八時十分

△京仁線‖(가)七〇四列車仁川發六時十分ー京城着七時三十分(나)七一七列車 京城發十八時十分ー仁川着十九時三十一分

△京元線‖(가)三一六列車 東豆川發ー六時三分京城着七時五十分

「岡」前警察部長 取調밧다逃亡

전경기도경찰부장구웅(岡久雄)이는거액의공금을횡령한후지난六일에인천을떠나는일본인수송선으로도주하려다가 체포되어 법무국특별검찰소에서 불구속으로 취조중이엇는데ー당국의호의를무시하고 지난十一월二十九일에 어대로자최를감추어버려서 특별검찰소에서는 경찰망을통원시켜수사중이다

휴지통

날근 휴지통이 통비인채 온지에 못친지・무봇멧해런고ー▼모진 발길에채우고 짓밟히면서도 썩어해여지지안하고 휴지통은날근 휴지통인 그대로!! 상밋레서 새우슴에 온지롤펄고 명그령△올자니 딱하고웃자니 럼업고 이보오三千만 형제요 자매들 휴지통을 붓잡고 웃어야 울소 울어야 울소ー▼허남은 북쪽에아우는 남쪽에 내땅은내땅이나 남북의 발길이 막히고 내거렴 내거레나 편지한장조차띠울길이 아득해 딱두하여 답답두하여ー▼마지노 선도치크푸리르ー선도 물어지자니 호래성이어터ー 하필 이좁은 이땅에 이어인장벽이오ー 만리장성이 제아무리 놉푸단들 무한뗑이뿐으면뭇어도지렷만…▲三十八도선은울도아니오 총칼도아니어늘 놉고 또놉파아넘자니 숨이 가뿌고 못고또못어 험자니 멋우리힘으론 어느날에나 멋바닥을볼런지?▼이선이 벌리는날 그날을 기다려 휴지통도 다시금은 지울털고 우슴가득 기쁨가득 떨어지는대로 주섬주섬 담아보리다

集會

下午一時大韓民國臨時政府歡迎會를서울運動場에서開催▲市內德成高等女學校에서는一日下午四時同校講堂에서音樂會를열고이어同窓會를開催

曆

十二月一日 陰十月二十七日(土曜日)

氣象豫報

◇豫報 京仁地方은東風 晴 後曇이다 ◇溫度 三十日 最低零下三・八度

祝重刊

泰昌織物株式會社

白樂承

還國한우리大韓臨時政府

海外風霜廿七年
祖國光復에一路直進
中、佛의承認어더對日戰參加
●血淚로點綴된亡命痛史

韓末의愛國志士 失國하자海外로

一九一〇年八月二十二日에 締結된 韓日合倂條約은 朝鮮을 搾取의 對象으로 삼고저 詐欺와 脅迫을 다하야 日本이 敢行한 一九〇四年의 韓日政府同盟條約뒤에 숨은 伏線의 完全露出이 잇다

허울조은 韓日政府同盟條約으로서 朝鮮의 獨立과 保全을 保障한다든것은 毒素를 품은 뱀(蛇)日本의 한개 政治「제스추어」이고 마참내 合倂 이란 名目아래 우리의 疆土는 勿論人民과 主權을 손아귀에 넛코야 만것이다

韓末 의風雲은 獨立主權이 倭奴의 侵犯으로 말미아마 송두리채 빼앗기자 이江山이 烈士는 마음대로 짓밟히고 國民은 헐버슨가운데 苦惱와 굶주림에 허터이엇다 이런가운데에 國外로 亡命한 愛國志士들은 一念으로 光復의 날만기대리고 애를쓰고 왓엇다 日本은 倂合以後 王室保護投爵制度로써 特權層에 阿附하며 一般에는 오직 武斷政治로써 十餘年을 朝鮮사람에는 숨도크게 못쉬게 하엿던것이다 (그뒤는더욱 奸惡한 政治手段을 썻다) 當時 發族에 빠진 一千五百萬의 民衆은 呆然할 彈壓政治의 奴隷化를 拒否하며 크게 숨쉴排出口만을 希願햇든 것이다。 때는 왓다

己未年萬歲에 政府를正式組織

一九一八年第一次世界大戰이끗난後 美國『윌손』大統領이 提唱한 『弱少民族自決』은 이 江山同胞에 가장 큰 衝激을 가져왓다 一九一九年三月一日 朝鮮革命史의 첫 페지 를裝飾하는 己未三一運動은 朝鮮의 完全自主獨立의 旗幟도 놉피 海內海外同胞가 呼應하여 힘잇게 世界史에 巨彈을 던젓다 이 巨彈이 的中하여 朝鮮이 이내 自主國家가 되엿던들 그 지긋지긋한 戰爭의 慘禍는 第二次大戰이란 名目으로 나타나지 안엇을 것이다

이 三一運動이야말로 國民의 血이 한데뭉처 三十三人의 各界各層代表가 獨立宣言에 署名을 하엿고 三千里坊坊谷谷은 獨立示威로 民衆은 熱狂하다

그러나 國內에서 完全한 뜻을 卽時로 이루지 못한 志士들은 海外亡命으로서 日本帝國主義에 正義의 抗爭을 繼續하고 世界各國家와 友好를 維持하기에 피의 鬪爭史를 여기시작한것이다 이리하여 三千里坊坊谷谷은 獨立示威로 民衆은 熱狂하엿다 同年四月十七日 京城에서 組織된 臨時政府는 臨時憲章을 制定 臨時憲法을 創定하야 凡五十六個條에 亘한 綱領等細則을 內外에 宣布하여 我國이 獨立國인것과 우리人民이 自由民임을 밝히엇다 卽『吾人은世界改造主義上에 吾人의 獨立을 求하야 吾人의 子孫으로 하여금 永遠한 自由를 選與하며 千代萬代子孫에게 苦痛과 恥辱의 遺産을 遺與치안흐려는것은 吾人의 神聖한 義務이다』라는 趣旨를 가진 三一運動은 嚴然한 成果를 거둔것이다 年號까지 大韓民國元年으로 定하고 使用하엿다 그러나 妖惡한 日本의 魔手에 걸린 疆土와 人民의 大部分은 武力압헤 할수업시 僞政의 祭物이 되고 다만 우리의 政府만이 風餐露宿 異域에서 二十七個星霜을 하로갓치 光復에의 鬪爭을 繼續하엿다

太平洋戰呼應
對日宣戰布告

上海、南京、杭州、武漢、長沙로 政府는 倭敵의 斷末魔的인 中支侵略으로 因하야 [illegible]의 길을 걸으며 轉[illegible]하여 끗내 初志를 버리지안코 흐러진힘을 合치고 처 第二次大戰이되자 蔣主席과함께 重慶에서 光復을 爲하야 對日戰에 全力을 다하엿다 우리는 이미 己未年三、一運動으로써 日本에 宣戰布告 하엿고 爾來臨時政府는 우리겨레의 뜻을 바더 中支를 根源으로 하야 日本에 對한 對敵工作을 積極的으로 하엿다 이는 示威運動 納稅拒否、官公吏退職、日本年號 廢止、日本法令拒絶、臨時 彈使用、國內國外決死組織、對日抗戰을 主眼으로 한것이다 齋藤總督暗殺計劃을 비롯한 大小事件을 爲始하야 一九三二年十月南京에서 內田滿鐵總裁暗殺計畫 一九三二年一月八日 李奉昌義士에 依한 日皇暗殺未遂 다시 一九三二年四月二十九日 上海新公園 奉吉、士에依한 事件。中國과의 親善을 두텁게하엿다 一九四一年十二月十三日에는 再次 日本에 宣戰을 布告하고 銳意祖國光復에 熱과 힘의 抗戰을하여 마참내 中美英蘇聯合國의 友好 喜『카이로』宣言으로 新生朝鮮은 새로운 明을 마지한것이다 이어 光復의 歡喜속에서 政府閣員은 還國하엿다 이에우리는 感謝的인 言辭로 떠나 臨時政府를 人의 總意에 依한 朝鮮의 唯一한 政府로서 認定안을수 업다

閣員과國務委員

△主席 金九
△副主席 金奎植
△內務部長 申翼熙
△外務部長 趙素昂
△財務部長 趙琬九
△文化部長 金尙德
△宣傳部長 嚴恒燮
△軍務部長 金若山
△法務部長 崔東旿
△參謀總長 柳東說
△議政院議長 洪震
△國務委員會 金九 金奎植 李始榮 曹成煥 黃學秀 趙琬九 趙素昂 金朋濬 成周寔 金若山 趙경韓 柳林 金星淑
△歐美外交委員會委員長 李承晩
△駐華重慶代表團主任 朴贊翊
△光復軍總司令 李靑天

國民에게보내는

各自職域을堅守
最大職能發揮하라
=國內事情은大綱把握햇다=
―主席金九閣下의말合―

二十九日下午四時半 竹添町宿所에서 우리의臨時政府主席金九閣下와 本報主幹과의 會見이잇섯는데 東亞日報를通하야 國民에게 보내는 말合의要領은 다음과갓다

一、우리를 信賴하야주는 國民의뜻을 고맙게 또 든든하게생각한다

一、還國한지얼마되지안음으로 國內事情의 細密한部分은 잘모르나 大體는 이미 把握하고잇다

一、지금 우리나라는 特殊한 政治形態의 治下에잇슴으로 우리의 所信과 施策을 鮮明하게 알리지못하는것은 遺憾이다 그러나 이것은 時日이 解決할것이니 國民은 安心하고 各自의職域에서 各自의職能을 最大限으로 發揮하기를 바란다

一、過渡期의 混亂이란 依例히 잇는法이다。 오히려 이過程을 밟어야만비로소 보다完全한 秩序와 團結과 一致를어둘것이다。國政萬般이 國民의 總力集結에 잇슴을 國民이 痛感하는以上、또 우리의 所信과 一致하는 以上、統一된 政治力의 育成에 對해서 樂觀을 가진다。

一、國家主權의 尊嚴을 維持하기에 治安確保가 先決條件인것은 두말할것도 업다。 지금 友邦中國의 援助로 우리 李靑天將軍아 光復軍을 擴大編成中이고 또 國內에서도 軍政當局과 協議해서 國軍編成의 土臺를 세우려한다。 지금 國內에는 여러단체가 잇는모양이나 우리의 命令系統을 밧는 것은 光復軍 하나뿐이다

一、中國에 남아잇는 同胞들도 不日內로 歸國할 터인데 모든施策은 그後로 밀운다 얼마남지아니한 餘生을 나는 오로지 國家와 民族의 繁榮과 幸福을 爲해서 心身의 全部를 바치려고 생각할뿐이다

◇寫眞은 上으로 부터 主席金九閣下、副主席金奎植閣下、國務委員李始榮氏、文化部長金尙德氏、宣傳部長嚴恒燮氏、參謀總長柳東說氏

廿萬猛訓練
―總司令部는方今南京에移駐해잇다―
凱旋아픈政府直系의光復軍

半世紀에 가까운 倭敵의 銃劍으로부터 解放된 三千里江土와 三千萬人民을 永遠無窮히 지켜나갈 軍備의 緊要性은 贅言을 要하지 안는다

朝鮮의 獨立을 爲하야 三十餘星霜을 血鬪해온 우리臨時政府와 運命을 갓치하며 帝國主義日本에 宣戰을 布告하고 韓國將校團三千名이 聯合軍에 加擔하야 世界大戰에 堂堂히 參戰하야 그 偉勳을 온 世界에 날리어 마참내 聯合軍과 갓치 勝利의 榮光을 獲得한 在華光復軍은 李靑天將軍의 指導下에 還國을 압두고 大陸大編成을 하야 猛訓練을 하고잇슴은 悉知의 事實이다。 이제 그 偉勢를 보면 大陸方面、南洋비르마方面等大平洋戰에 被迫出戰하얏든 學兵、志願兵、徵兵等 韓籍軍人을 吸收하야 海外 十五萬 海內 五萬 總勢二十萬을 넘는다

。이우리 臨時政府의 直屬正規軍은 重慶에 第一支隊 西安에 第二支隊 南京에 第三支隊 廣東에 印度 비르마 南洋方面을 包含한 第四支隊를 두고잇는데 重慶잇든韓國光復軍總司令部는 얼마前에 南京으로 轉移하엿다 그외에 西安에잇는 第二支隊는 北京에 辦事處를 두고 별서 五千餘精銳를 包擁하고 잇는데 이들 海外光復軍과 步調를 갓치하야 國內에도 解放直後 吳光鮮將軍 麾下에 國內外로부터 參馳한 純烈한 愛國靑年들이 明日의 國軍으로서 晝夜不徹의 猛訓練을 하고 잇는 偉觀은 建國途上의 韓國將來에 儼然한 磐若不動의 存在로서 無限한 信賴感을 禁치못한다 그리고 在華光復軍에서는 將次 國軍을 指揮할 幹部를 養成하고저 南京 上海 西安 開封等 四個處에 光復軍訓練所를 設置하고 晝夜猛訓練을 繼續하고 잇다

希望과喜悅품고
歸國하신閣員들

臨時政府는 出發에잇어서 朝鮮全民衆의 全體意思의 發露로 成立된것이다 다만 敵으로 因하야 土를 일코 人民의 大部分을 일엇다 때문에 中國各地를 비롯하야 露領으로 間島로 美洲로 『메키시코』『하바』等地에 허진 志士와 國內外 志士가 呼應하여 세운政府이고 二十七年 동안을 살펴본다면 日本의 壓迫과 經濟乏迫 또는 主義主張의 相違로 이제것 維持하기에 幾多의 困難이 업지 안엇다

政府 成立의初年期는 姑捨하고 重慶時代만 보드라도 韓國獨立黨 新韓民主黨 民族革命黨 共產黨 無政府主義聯盟等이 若干主義主張을 고집하기도 하엿스나 太平洋戰爭이 터지자 將元帥와 더욱緊密한 連絡을 맷는 한편 主張을 超越하여 一路朝鮮의 完全自主獨立을 爲하야 統一路線을 것겟다는 自覺과 決意아래 統一宣言으로서 完全한 結束을 하엿다 또한 延安에 머물러잇는 革命同志들과도 緊密한 提携가 잇다함은 國內同胞로서 마음든든한일이다 이리하여 臨時政府의

現在 는 過去에 通하고 未來또한 現在를 바탕으로 하여 새 뜻에 가득찬 疆土와 民意에 合致되어 世界에 뚜렷이 그 存在價値를 發揚할것이다 主席以下各閣員은 비록 對外情勢로 말미암아 個人資格이라 하나 우리國民은 다함께 政府로서 마저야 할것이고 또한 이네 民意를 總集中시켜야할것이다 屈辱의 구렁이에 빠지는 民族의 運命을 곳곳내 防禦할 단한개의 堤防은 오직 臨時政府이고 이에

綿綿 한 一縷의 希望을 가진 우리겨레의 버리어 번이라하겟다 한亡命政府가 이처럼 오래도록 海外에 잇스며 또한 오랜동안의 壓迫에도 다시금 光復에 찬 進展을 하는 民族은 이제까지의 史上에 업는 일일것이다 臨時政府는 嚴然한 存在로서 그로이미 中國과 佛政權의 承認을 밧엇고 압으로는 우리 全民大衆과 함께 갈 [illegible] 鮮建設의 [illegible] 이다

海外同胞들은 오 [illegible] 從하고 兵役 [illegible] 지 지켜왓다 [illegible] 이 政府를 [illegible] 에게는 너무 [illegible]

世界를一家로
友邦과協助를提唱

臨時政府의當面政策은 압서 金九主席名으로 發表十四個條口呼로서 그大綱을 能히짐작할수잇다 第二條에 友邦民族과더부러 切實히提携하고 聯合國憲章에依하야 世界一家의 安全과平和를實現함에 協助할것을 强調하고 六條에 全國的普選에依한正式政權이樹立되기까지 各界各層을網羅한民主領袖會議를召集하며 가장重要한것은 八條에 이르되 國內에서 建立된正式政權은 반드시 獨立國家民主政府均等社會를 原則으로한 新憲法에依하야 組織할것이라하엿다 十四條의 當面口號를 비롯하여 金九主席은 다시 入國卽時에 『오직나와나의 同事는 完全히 統一된 獨立自主의 民主國家를 完成하기爲하야 餘生을 바칠 決心을 가지고 入國하엿슴으로 우리겨레를 爲해서 水火라도 不辭하겟다고 堂堂히 宣言하엿다 오로지 八、一五以後의 混亂은 臨時政府의 入國을 契機로 漸次로 路線이 接近해오는 民族陣營과 階級陣營은 李承晩博士가 提唱한 獨立促成中央協議會를 歸宿點으로하야 갓든理念아래 統一戰線에 曙光을 터지고잇는것이다 兩陣營이 窮極의目的이 朝鮮의自主獨立일진대 이들은 갓든路線에서 民主的統一戰線을 結成하야 여기에서結合된 要素는 各各自由로히 新生朝鮮의 自主獨立을 이룩할것이다

오랜 歷史와 希望에 찬 우리 臨時政府는 그러면 어떠한組織과 機構를 가지고잇는가 政府가 樹立된 當初에는 李承晩博士를 臨時大統領으로하여 國務總理에 李東寧氏、이밧게 七部가 잇고 臨時議政院이 잇섯다 그리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거저는 때마다 여러各團體를 召集하여 政府를 補强育成하여 現在에는 金九主席、金奎植副主席 밋 內務、外務、財務、宣傳、文化、軍務、法務의 七部와 參謀總長管轄下에 直系光復軍이 잇서 最新式軍裝을 가추며 議長洪震氏外五十名議員이 잇스며 國務委員會에 李始榮氏等十四名委員이 잇서 內政全般에 亘한 處務를 하고 外로 李承晩博士를 委員長으로한 駐美外交委員會와 駐華重慶代表團(主任은 朴贊翊氏)으로된 外交特務機關이 잇서 國際 [illegible] 고잇다

ClibPDF - www.fastio.com